

‘탑건’ 홍보 위해 10번째 내한…톰 크루즈의 한국사랑 “40번 더 한국 올게요”

“너무사랑했기에 속편 36년이나 걸려 한국개봉 늦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한국팬들 환대에 노력 인정받는 기분 마스크안 따뜻한 미소 느낄 수 있어요”

‘친절한 톰 아저씨의 귀환.’ 벌써 10번째다. 1994년 ‘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후 무려 10차례 한국을 찾았다. 때마다 진심을 다하는 친근함으로 팬들을 감동시켜 ‘톰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60)이다.

2018년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이후 4년 만에, 무엇보다도 감염병 사태 이후 처음 한국으로 날아온 스타라는 점에서 그의 ‘찐한 한국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 역시 한국 팬들의 환대에 감격한 표정이다. 1986년 주연작 ‘탑건’ 이후 36년 만인 22일 선보일 속편 ‘탑건: 매버릭’ (탑건2)의 홍보를 위해 17일 전용기를 타고 입국한 그는 1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깔린 레드카펫을 밟으며 수백여 “팬들의 에너지”를 오롯이 느꼈다. 팬들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까지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방문은 항상 즐겁고 기쁘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한국이란 나라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 40번은 더 방문할 것”

내한 전 그는 “사실 스케줄을 어렵게 조율했다”고 돌아섰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 개봉이 늦어지면서 일정상 내한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말을 이어 내렸다.

“팬들의 환대를 보며 내한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뿌듯했다. 행사장에서 느낀 팬들의 반응은 정말 아름다웠다. 한국 팬들이 마법 같은 시간을 선사해줬다. 감염병으로 인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한국 관객과 함께 극장에 앉아 영화

를 관람”한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어렵게 제작한 영화인 만큼 “힘들었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 더욱 그랬다. 그는 감동을 선사해준 한국 팬들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2를 들고 또다시 한국을 찾을 계획이다.

“2023년과 2024년 여름에도 아름다운 나라에 돌아올 거라 약속한다. 벌써 10번이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앞으로 30번, 40번은 더 오고 싶다. 이젠 내 꿈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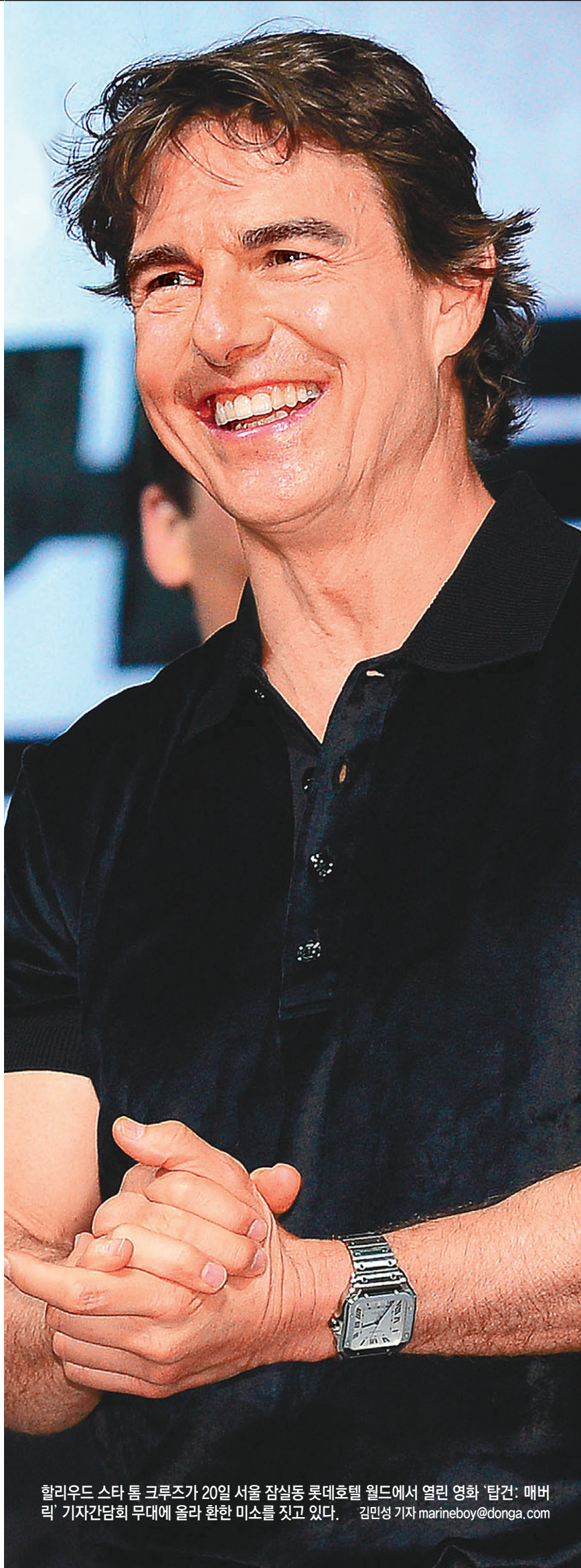
●“영화는 나의 모든 것”

한국 팬들의 뜨거운 환대에 그는 영화로 화답하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탑건’ 이후 많은 이들이 속편을 원했지만 쉽게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도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였기 때문이었다는 그는 그만큼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작품을 원했다. 속편을 선보이기까지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제작자 제리 브룩하임과와도 늘 속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완벽한 준비’가 되기 전에는 만들지 말자고 했다. ‘탑건’이라는 영화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1편을 사랑해준 전 세계 팬들을 결코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톰 크루즈는 1981년 데뷔 이후 41년간 자신에게 영화는 “인생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높은 건물에 매달리거나 전투기를 조종하는 등 최대한 대역을 쓰지 않고 모든 장면을 촬영하는 이유도 오로지 영화에 대한 사랑과 애정 때문이라는 자부심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영화산업 안에서 보냈다. 저에게 영화는 꿈이자 열정이자 인생이자 저의 모든 것이다.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영상화해 관객과 공유하는 건 내 인생의 전부다. 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영화에 대한 내 열정은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진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20일 서울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영화 ‘탑건: 매버릭’ 기자간담회 무대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손흥민(토티)을 향한 관심은 2021~2022시즌 EPL이 끝난 뒤에도 식을 줄 모른다. 큰 주목을 받은 자체 패션 브랜드 론칭과 연속 매진을 기록한 7월 토티의 내한경기 등이 그 영향력을 증명한다. 지난달 24일 ‘골든부트’를 들고 귀국한 손흥민. 스포츠동아DB

팬들 사로잡은 대한민국 캡틴 이번엔 ‘손흥민 브랜드’ 열풍

최근 론칭한 자체브랜드 NOS7 인기 폭발
국내선 호날두·조던 브랜드 이상 성장 예상
절친 배우 박서준도 NOS7 셔츠 SNS 홍보

아시아축구선수 최초의 유럽 5대 리그 득점왕 도전으로 주목받았던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막을 내리고, 브라질(1-5 패)~칠레(2-0 승)~파라과이(2-2 무)~이집트(4-1 승)로 이어진 6월 A매치 4연전도 모두 끝났지만 손흥민(30·토티)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연일 지속되고 있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의 엄청난 영향력은 최근 론칭한 자체 패션 브랜드 ‘NOS7’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서울 청담동에 팝업 스토어 개장을 하루 앞두고 대기 줄까지 늘어섰다.

사실 본인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달 24일 ‘골든부트’를 들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을 때 ‘NOS7’ 로고가 새겨진 광범한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뿐이다. 심지어 대표팀 소집훈련을 위해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했을 때는 다른 스포츠 브랜드의 옷을 착용했다.

‘NOS7’ 문구의 의미를 유추한 것도 팬들이었다. ‘손’의 영문표기(SON)를 거꾸로 표기하고 ‘등번호 7’을 조합했다는 것이다. 일단 팝업 스토어에 등장한 제품에는 ‘Nothing, Ordinary Sunday(별일 없는 평범한 일요일)’가 새겨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이 입국 당시 입은 반팔 티셔츠는 7만3000원이다. 반바지는 9만7000원, 모자는 4만7000원. 일각에선 ‘평범한 디자인에 비해 꽤나 비싼 금액’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손흥민의 브랜드 파워와 ‘손흥민 굿즈’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이라는 시선도 있다. 손흥민과 친분이 두터운 인기배우 박서준도 홍보에 나섰다.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NOS7’ 티셔츠를 입고 손흥민의 집을 방문해 ‘골든부트’를 손에 든 사진을 찍었다.

패션업계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퀄리티, 가격대 등은 차치하고 적어도 국내에선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체 브랜드 ‘CR7’,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의 ‘AIR JORDAN’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한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는 “손흥민의 상품을 소유하고 싶은 팬들의 니즈를 ‘NOS7’이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은퇴 후까지의 예상할 수 없으나 수년간은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잠정 활동 중단 BTS, ‘빌보드200’ 6번째 정상…신작 ‘프루프’ 발표 즉시 1위 ▶ 11면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부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100% 국산

저온농축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부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